

우리,자주의 날개를 펴자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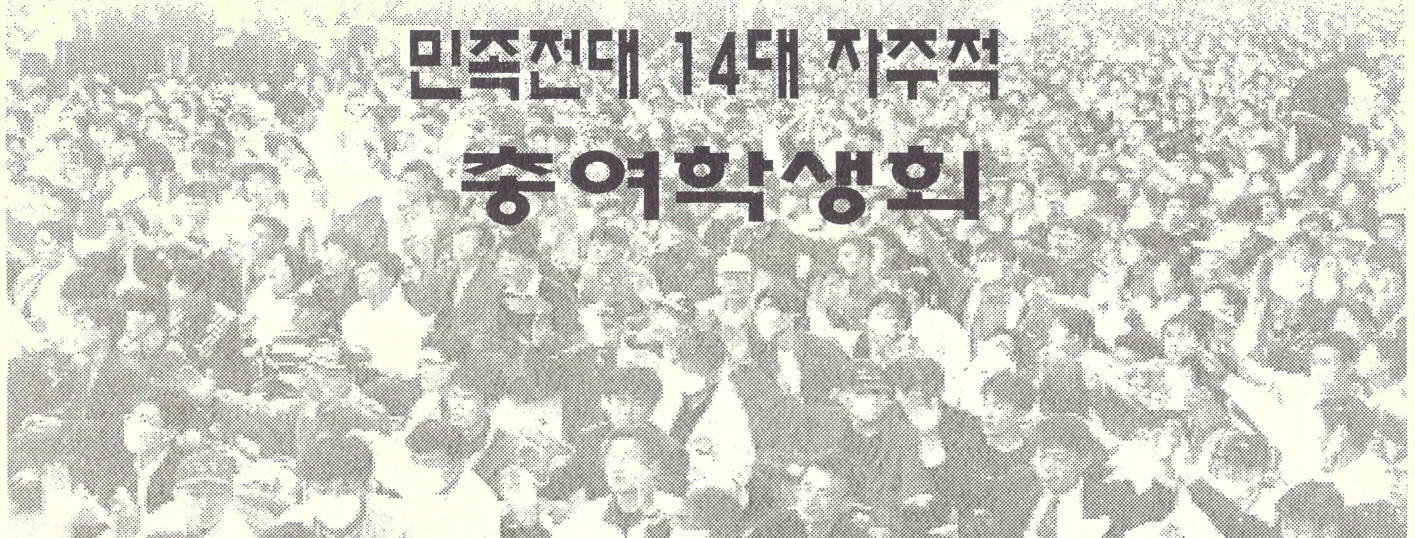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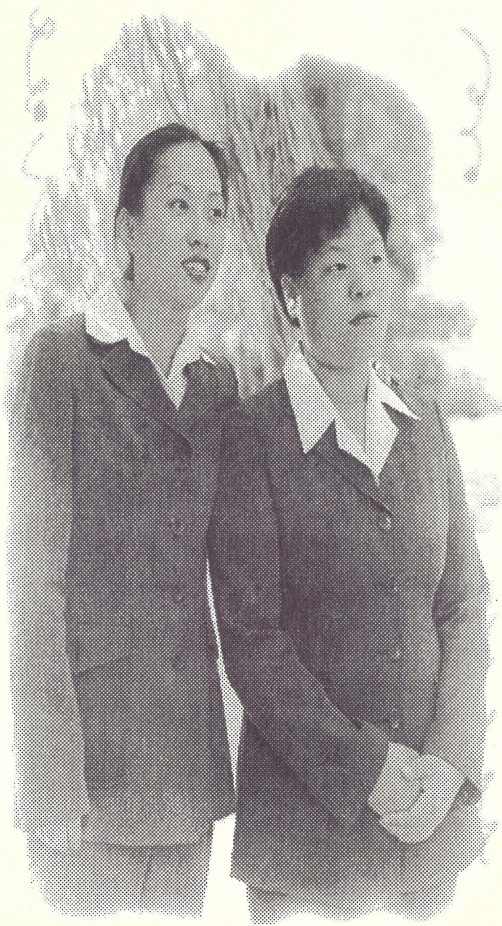
출범식

일시: 98년 3월 26일(목) 늦은 5시
장소: 구본부 뒤 특설무대

여성이어 비상하라! 세상의 주인으로

민족전대 14대 자주적 충여학생회





안녕하세요

총여학생회장 · 부회장 수진와 점석이입니다.

33만평 용봉골 곳곳에 봄빛이 가득합니다.

대강당 앞 매화향기도 짙고,

백도옆 목련꽃도 너무도 아름답습니다.

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.

우리에게겐 가슴아픈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.

바쁘게 도서관으로 향하는

학우들의 무거운 발걸음, 가슴 열어놓고

이야기할 수 있는 동기이기 보다는

취업 경쟁 상대로 바라봐지고...

IMF 경제난 극복의 대안이라고 나온 것은

노동가족 다 죽이는 정리해고제

그 속에서 정리해고 0순위가 되어버린 우리 여성 노동자들.

그리고 정권과 언론은 건국 이래 가장 많은 특사라 운운하며

언론으로 떠들어대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오지 못한 채

양심수라는 이름으로 감옥 안에 있는 우리 동지들...

윤금이, 이기순, 허주연 누이...

갈수록 잔악해지는 미군범죄들...

이것이 우리 조국의 현실입니다.

내가 살아가는 남한의 현실입니다.

이 조국의 현실 앞에

우리는 봄날의 낭만만을 꿈꾸고 있을 수는 없는 청춘입니다.

열 여덟의 영생을 찾는 청춘시절

이제 오월 정신이 살아 숨쉬는

민족전대의 청춘답게 시작합시다.

바로 이곳 총여학생회 출범식에서...

여성이어! 비상하라 세상의 주인으로

민족전대 14대 총여학생회 김수진 · 김점석

행·사·일·정

민족전대 14대
총여학생회

본행사

■ 1부

- 길놀이
- 문예공연
- 출범 축하사
- 집체극
- 율동 배우기

■ 2부

- 민중의례
- 축하사 - 여성노동자들과 함께
- 역대 총여학생회 회장·부회장 인사
- 인식극
- 과여발특위 출범
- 각 단대여학생회 인사
- 출범 선언
- 봉지 배 띄우기
- 대동놀이

■ 부대행사 <봉지주변>

- 일본군 위안부 후원회 모집 - 할머니들께 엽서 쓰기,
- 후원회 회보 배포, 배지 판매, 손도장 그림그리기
- 생활문화혁신운동 - 대학문화정화단 모집, 우리옷 판매,
이스트팩 안 매기(예쁜 배지 달아주기)
- 미국 바로 알기·성조기 밝기

■ 기획거리

- 내가 바로 한총련이다
- 일본군 위안부
- 대학문화 내가 바뀌요!
- 용봉골이 무서워요?!?
- 전여대협·남여대협이 뭐지?

가는 길이 역사다

민족전대 2만 학우가
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후원인이 됩니다.
 해방이 후 반세기가 지났는데도
 우리 민족자주의 역사를 짓밟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
 이제는 민족전대 2만 학우가 후원인이 됩니다.
 얼마 전 돌아가셨던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으로
 우리 사회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
 일본의 왜곡과 회피, 은폐음모 속에서
 그리고 한국 정부의 방관적 태도로 아직도 해결된 것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.
 매주 수요일이면 우리 할머니들의 외로운 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
 한국의 전투경찰이 지키고 있는 일본대사관 앞에서
 벌써 6년째 역사의 진실을 촉구하는 수요집회를 해오고 계시는
 할머니들의 든직한 후원인이 됩시다.

더 이상 할머니들만의 문제만도 여성만의 문제도 아닌
 민족 자주권 회복의 문제인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투쟁을
 2만 학우가 함께 해 나갑시다.

김수진 총여회장을 주주로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.
 회비는 한 학기당 5,000원
 주기적으로 회보 발간
 할머니들이 계시는 '나눔의 집' 방문

